

복합혁신센터 건립 청사진 '윤곽'

전주시,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서 주민 의견 수렴 혁신도시에서 2021년 12월 개관 목표 150억원 투입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시설까지 갖춘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청사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층에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키즈복합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인 (사)국가산업개발원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기본구상안 설명, 타 지역 유사시설 사례 발표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수만명이 입주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북혁신도시에 미래주요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교와 다양한 학원이 밀집된 장동 1068-2 일원에 오는 2021년 12

월 개관을 목표로 총 15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000~5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놀이 및 체험공간 △부모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교양·휴식 공간 △청소년 동아리 공간 △전시·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용역결과물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오는 6월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전북도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4월부터 복합혁신센터 건물 내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구성(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5월에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600여명과 인근 4개 학교(은빛초등학교, 양현초등학교, 은빛중학교, 양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용자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공간 구성, 커뮤니티 중심의 창의성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원하게 내리는 비와 교정
시원한 비가 내린 27일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헌신·노력으로 빛나다'

전주시민의 장·모범시민상 수상자 선정 시민의 장에 효열장 이상희씨 등 6명 모범시민상에 유경수씨 등 5명 결정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해온 2019 전주시민의 장·모범시민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주시는 27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각계 분야에서 업선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6명을 최종 확정했다.

영예의 2019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효열장의 이상희씨(63, 여), 교육장의 김운경씨(60, 여), 문화장의 강정열씨(68, 남), 노동산업장의 양국씨(67, 남), 공익장의 소순갑씨(78, 남), 체육장의 이병하씨(68, 남)다.

먼저 효열장에는 벼출혈로 거동 자체가 불편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부 모처럼 모신 이상희 씨가 선정됐다.

또한 교육장에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서 재직하며 혁신학교와 수업혁신학년 운영, 전주교육공동체 구축 등 지역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김운경 씨가 선정됐다. 문화장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전국국악대제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전북도립국악원 교수로서 후학양성 및 교재 편찬 등 지역 문화 발전과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강정열 씨가 선정됐다.

공익장에는 2003년 전북노인복지회문화를 출범시켜 노인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최하며 유문화 실천을 독려하고, △효실천 우수학교 지정 △전북효지도사교육원 개설 등 효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온 소순갑 씨가 선정됐다.

끝으로 체육장에는 전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전주시통합체육회 이사, 전주시태권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약 40년 동안 태권도 후학 양성에 헌신하는 등 전주시체육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이병하 씨가 선정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이상희씨 김운경씨 강정열씨 양국씨 소순갑씨 이병하씨

모범시민상 수상자



유경수씨 정기선씨 김순중씨 김명지씨 이재홍씨

했다. 이들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평소 한결같은 성실한 봉사정신과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유경수(동서화동) △장기선(덕진동) △김순중(금암2동) △김명지(완산동) △이재홍(효자5동) 등 5명을 '2019년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담긴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은 우리지역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전주시민의 장'을 '전주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민대상은 '환경대상'과 '복지대상'의 2개 수상부문이 신설되고, 기존 수상분야 중 '명예시민제'로 보완이 가능한 '애향장'은 폐지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무주국립관리소 을지태극연습 현장 견학

무주국립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시대비 연습 기간인 29일 오전 6시에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에 참가하는 전 직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일일연습상황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5월 28일)에는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철벽의 총' 안보현장 견학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더욱더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송상준·박윤정 전주시의원, '자랑스런 대한민국시민 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 최근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등이 공동주관하는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2019 효행우수시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방의회부문 2019 우수지식인 대상을 수상했다.

4인의 송 의원은 지난 제10대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효행 실천에 앞장서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



송상준 시의원 박윤정 시의원

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당연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당연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바지 훔친 50대 검거

손님으로 가장해 의류 매장에 들어가 바지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의류 매장 의자 위 소림백에 보관중인 26만원 상당의 바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장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카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손님아 구매한 바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석훈 기자

전주시, 30일까지 '을지태극연습' 실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을지태극연습이 시작됐다. 전주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주시 전역에서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위기 발생에 대비한 국가자원 총 동원 훈련인 '2019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전주시청 직원들은 전 직원 불시비상소집, 종합상황실 등에서 직원 170명이 사흘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메시지 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제 전시 상황을 고려한 전시직제가 편성되고,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창설기구 △실제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비상시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유물관리관과 합동으로 대테러훈련도 전개된다. /송효철 기자

동완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학기)는 지적재조사사업(동완산지구)의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공고 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동완산지구) 대상지는 완산구 동완산동 369번지 일원으로 총 706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6300만원(전액국비 지원)이다. 측량·조사 수행자가 선정 고시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선정업체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를 수행한다. /송효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선고 재판은 내달 18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대상이던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최근 박모씨(43)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권 획득이 어려워진 측근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2)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1)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42)씨 등 공범 4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벌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석훈 기자

'악성코드 어플'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 체포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모(23)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 4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어플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계좌 입출금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악성코드가 도중에 전화 신호를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특정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일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

금품 제공에 사전 선거운동까지... 남원 A 조합장 구속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북 남원 모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장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 C씨에게 마을 행사에 쓸 술과 음식을 조합원에 제공하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 동안 마을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조합장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김석훈 기자